

## 『備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의 求子門에 대한 研究

<sup>1</sup>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大學生 · <sup>2</sup>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人文社會醫學部 教授

朴哲弘<sup>1</sup> · 柳延我<sup>2\*</sup>

### A Study on the Letter about Gaining Child of 『Beijiqianjinyao Fang』 and 『Qianjinyi Fang』

Park Cheol-hong<sup>1</sup> · Lyu Jeong-ah<sup>2\*</sup>

<sup>1</sup>Graduate Student at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Professor at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 Contents regarding Qiuzimen as found in Beijiqianjinyao Fang and Qianjinyi Fang were studied for their potentialities to be applied to infertility clinics.

**Methods** : The contents on Qiuzimen in Beijiqianjinyao Fang and Qianjinyi Fang are pondered upon after dividing into two categories of medical theory and therapeutic principle, and other related texts and dissertations are further studied to discover a potential subject matter in being applied to today's modern clinics.

**Results** : 1. In medical theory, Sun Simiao picked five overexertions and seven damages as the main medical cause of infertility. For remedy, he established four common formula, which are: chinjisan, bakchotangpotang, suppository, and haseog(cheon)moondongwhan.

2. There are total of thirteen types of formula described in the Qiuzimen in Beijiqianjinyao Fang and Qianjinyi Fang, and five acupuncture points are used in the moxibustion method. After analyzing the herbs that were used six or more times, it was discovered that medicines were used to tonify the viscera of heart and kidney that are damaged through five overexertions and seven damages. In moxibustion method, different points such as CV4, LR14, pomoon, cheonmoon, and KI2, which is the point for kidney meridian were used in order to tonify the uterus through lower abdomen area and reproductive organs.

3. Qiuzimen has not only had a great impact on the infertility treatment as found in Furendaquanliangfang, which is the first gynecology text in Song dynasty, but it also had a continuous impact on medical texts in Ming and Qing dynasty.

4. The infertility therapeutic principle and approach method as found in the Qiuzimen are still relevant in today's modern infertility treatment.

**Conclusions** : In the Qiuzimen of Beijiqianjinyao Fang and Qianjinyi Fang, the problem of infertility is viewed as the whole body's problem, namely a type of defective disease caused by five overexertions and seven damages, the view of which should be applied to today's modern clinics.

**Key Words** : Sun Simiao, Beijiqianjinyao Fang, Qianjinyi Fang, infertility, pregnancy

\* Corresponding Author : Lyu Jeong-ah.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50612, Korea.

Tel: +82-51-510-8451, E-mail: Lyuja@pusan.ac.kr.

Received(Aug 3, 2018), Revised(Aug 14, 2018), Accepted(Aug 14,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序論

孫思邈은 부인의 胎, 產, 經, 帶라는 생리적 특징 뿐 아니라 慈戀, 愛憎, 嫉妬, 憂患와 같은 정서적 특징을 인식하여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 총 60卷 가운데 7卷에 해당하는 많은 분량을 부인과 질한 서술에 배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備急千金要方』에서는 서론에 해당하는 “醫學諸論” 바로 다음에 “婦人方”을 두었으며 『千金翼方』에서는 卷之一에서 卷之四까지의 “諸藥品”에 이어 卷之五부터 卷之八에 걸쳐 “婦人方”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千金翼方』 卷之九에서 卷之十의 “傷寒”이나 卷之十一의 “小兒”, 卷之十二의 “養性·養老”보다 앞에 둔 것이다. 이로써 볼 때 孫思邈은 婦人科를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논자는 현대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난임 문제 해결 방안을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 「婦人方求子門」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孫思邈의 「婦人方求子門」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이병욱<sup>1)</sup>은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 나오는 婦人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求子門을 일부 설명하였고, 金珉申<sup>2)</sup>은 孫思邈의 불임증 치법의 전반적인 특성을 “補腎爲主, 治帶爲先, 痰瘀同治, 綜合治療”의 4가지로 분석하였다. 또한 郭勇義<sup>3)</sup>는 『備急千金要方』 불임증의 병인병기를 “勞傷虛損, 外感風寒客於胞宮, 瘀濁阻滯胞宮”으로 분석하고 치료원칙으로 “男女同治, 驅邪爲主, 內外同治”를 들었다. 露紅<sup>4)</sup>은 『千金翼方』 求子方의 用藥 특색을 “善用大方, 男女同治, 內外合治, 隨證加減, 劑型豐富多樣”으로 보았다.

논자는 선행 연구에서 깊이 다루고 있지 않은, 孫思邈이 불임증의 주된 원인으로 들고 있는 “五勞七傷”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孫思邈

이論하는 불임증 해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五勞와 七傷이 의미하는 바를 『千金要方』과 『千金翼方』 전체 원문을 통해 파악하여 孫思邈의 불임치법 원칙의 근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婦人方求子門」에 수록된 불임증 치법의 13가지 처방과 구성약재를 분석함으로써 孫思邈이 제시한 불임치료 원칙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 求子門이 제시하는 불임 해법이 갖는 의사학적·임상적 가치를 고찰하고, 현대임상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임상증례보고 논문을 통해 확인하여 보았다.

## II. 本論

### 1. 醫論

#### 1) 임신을 위한 우선 전제 조건

孫思邈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의 신체적인 조건보다 조상의 뒷자리와 부부의 사주상의 조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만약 그 本命의 오행이 상극하여 자식이 없게 될 운명이라면 의학적인 방법을 써서 자식을 구하는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若其本命, 五行相克, 及與刑殺衝破, 并在子休廢死墓中者, 則求子了不可得, 慎無措意, 縱或得者, 于後終亦累人.<sup>5)</sup>

만약 부부의 本命이 오행 상극하여 함께 더불어 벌하고 죽이고 부딪고 깨뜨리거나 또한 자식이 끊어지거나 무덤 속에 죽을 운명에 있는 경우에는 곧 자식을 구해도 끝내는 얻을 수가 없으니 삼가 뜻을 두지 말라. 설령 혹 얻더라도 후에 마침내 역시 사람에게 누가 된다.

즉, 求子에 있어 첫째로 가장 중요시 한 것은 부부의 本命이 五行 상생하고 덕과 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生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신은 인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 질 수 없다는 天命사상과 더불어, 자식을 얻는 것은 사주팔자에 달려있

5)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8.

1) 이병욱 외 3인.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記載된 婦人科 學說에 關한 研究. 대한한방방인과학회지. 2002. 15(4). pp.98-110.  
2) 金珉申, 李成卫, 王庆国. 《千金要方》不孕症治法探析. 辽宁中医杂志. 2016. 43(2). pp.267-268.  
3) 郭勇义, 贺亚蕾, 吴芳. 《备急千金要方》不孕症治疗理论阐释. 中国中医药现代远程教育. 2015. 13(14). pp.11-12.  
4) 露红. 《千金翼方》求子方用药规律和特色探讨. 辽宁中医杂志. 2016. 43(4). pp.736-738.

다고 여겼던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巢元方 또한 부부의 사주가 서로 相克이어서 견제하거나 묘 자리를 잘못 써서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婦人無子者，其事有三也。一者墳墓不祀，二者夫婦年命相克，三者夫病婦疹，皆使無子。<sup>6)</sup>

부인이 자식이 없는 것은 그 사유가 세 가지가 된다. 첫째는 조상의 뭇자리가 길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부부의 연명이 상극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부부가 질병이 있기 때문인데, 모두 자식이 없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巢元方은 부부의 本命이 五行 상相生관계이고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복덕이 있다면 임신을 위한 여러 금기를 피하고 처방을 쓰는 등 求子를 위한 노력을 인위적으로 기울일 수 있다고 여겼다.

若其相生并遇福德者，仍須依法如方避諸禁忌，則所誕兒子，盡善盡美，難以具陳。<sup>7)</sup>

만약 그(본명)이 상생하고 더불어 福德을 만나는 자는 모름지기 법에 의지하여 처방을 갈게 하고 여러 금기를 피한즉 태어나는 자식이 善을 다하고 美를 다하는 것을 모두 말하기가 어렵다.

## 2) 불임의 원인 五勞七傷

孫思邈은 불임의 주원인을 五勞七傷으로 들었다.

凡人無子，當爲夫妻俱有五勞七傷，虛羸百病所致，故有絕嗣之患。<sup>8)</sup>

무릇 사람이 자식이 없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五勞七傷으로 虛羸百病에 이른 까닭이니 그러므로 후사가 끊기는 근심이 있다.

孫思邈은 불임의 근본 병인으로 五勞七傷을 들었

다. 이로 보건데 孫思邈의 불임 처방은 五勞七傷으로 인한 虛羸로 대표되는 百病을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巢元方도 같은 맥락에서 의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불임의 주된 신체적 근본 병인을 ‘勞傷血氣’로 들었다.

其若是墳墓不祀，年命相克，此二者，非藥能益。若夫病婦疹，須將藥餌，故得有效也。然婦人挾疾無子，皆由勞傷血氣，冷熱不調，而受風寒，客于子宮，致使胞內生病，或月經澀閉，或崩血帶下，致陰陽之氣不和，經血之行乖候，故無子也。<sup>9)</sup>

만약 그 조상의 뭇자리가 길하지 않고, 연명이 상극하다면, 이 두 가지는 약으로써 능히 도울 수 없다. 만약 부부가 병이 있으면 장차 약으로써 해야 효험이 있게 된다. 그런데 부인이 질병이 끼어서 자식이 없는 것은 모두 勞傷血氣로 말미암나니 冷熱이 조화롭지 못함때 風寒을 받아 자궁에 客하게 되므로 胞 안에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혹은 월경이 쫓겨나 마히거나 혹은 崩血과 帶下가 되어 陰陽의 氣가 조화롭지 못하므로 경혈의 행함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되니 그러므로 자식이 없게 되는 것이다.

五勞七傷은 五勞와 七傷을 한데 아울러서 일컫는 말이다. 孫思邈은 五勞는 五臟病이며, 七傷은 表裏가 병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五勞와 七傷에 대하여서 『備急千金要方·卷十九腎臟方·補腎第八』에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말하고 있다.

補方通治五勞六極，七傷虛損。五勞五臟病，六極六腑病，七傷表裏受病。五勞者，一曰志勞，二曰思勞，三曰憂勞，四曰心勞，五曰疲勞。(중략) 凡遠思強慮傷人，憂悲悲哀傷人，喜樂過度傷人，忿怒不解傷人，汲汲所願傷人，戚戚所患傷人，寒暄失節傷人，故曰五勞六極七傷也。<sup>10)</sup>

補하는 方은 五勞六極과 七傷虛損을 아울러 다

6) 巢元方, 諸病源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282.

7)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東大星文化社. 1992. p.38.

8)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8.

9) 巢元方, 諸病源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282-283.

10)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609.

치료한다. 五勞는 五臟病이고, 六極은 六腑病이며, 七傷은 表裏로 받는 병이다. 五勞라는 것은, 첫째로 뜻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생각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고, 셋째로 걱정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피곤하게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중략) 깊이 생각하거나 피하기를 힘쓰면 사람을 상하고, 근심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서러워하면 사람을 상하고, 회락이 과도하면 사람을 상하고, 분노가 풀리지 않으면 사람을 상하고, 원하는 바에 급급하면 사람을 상하고, 근심하는 바에 애로우면 사람을 상하고, 날씨의 추고 더운 정도가 절도를 잃으면 사람을 상한다. 그러므로 “五勞, 六極, 七傷”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감정과 정서적인 문제가 주로 五勞와 七傷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병에 걸리기가 배로 쉬운 이유를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然而女人嗜欲多于丈夫, 感病倍于男子, 加以慈戀, 愛憎, 嫉妒, 憂悲, 染着堅牢, 情不自抑, 所以爲病根深, 療之難痊.<sup>11)</sup>

그러나 여인은 장부보다 기욕이 많아 병에感하는 것이 남자의 배가 된다. 이에 더하여 사모하고 연연하고 애증과 질투, 근심과 분노로써 물들고 들러붙어 단단히 에워싸이게 됨으로情有 스스로 누르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질병이 되는 뿌리가 깊어 그것을 치료해도 차도가 있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千金翼方·卷第十五補益·叙虛損論第一』에서 五勞를 질병의 원인으로 언급하고, 그 결과 우선순위로 손상되는 장부를心和腎으로 밝히고 있다.

然疾之所起, 生自五勞, 五勞既用, 二臟先損, 心腎受邪, 腑臟俱病.<sup>12)</sup>

질병은 五勞로부터 비롯하여 생기는데 五勞가 이미 작용하면 二臟이 먼저 손상되어 심장과 신장이 사기를 받아 장부가 함께 병들게 된다.

## 2. 治法과 처방

### 1) 治法의 원칙

孫思邈은 불임의 주된 원인을 五勞七傷으로 보았고, 불임증을 그로 인한 虛羸百病의 일환으로 보았다. 또한 五勞로 인하여 먼저 손상 받게 되는 장부를 心·腎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五勞로 인해 虛損된 心腎 二臟의 補完을 求子門 처방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求子門 처방들을 구성하는 본초를 분석해보면 人參, 桂心과 같이 心腎을 補하고자 하는 목표에 초점을 둔 본초를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처방 분석

孫思邈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五勞七傷으로 인한 虛羸百病의 일환으로 불임증을 앓는다고 보았고, 이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七子散, 朴硝蕩胞湯, 坐藥, 紫石(天)門冬丸 4가지를 대표로 들고 있다.

論曰, 凡人無子, 當爲夫妻俱有五勞七傷, 虛羸百病所致, 故有絕嗣之患. 夫治之之法, 男服七子散, 女服紫石門冬丸, 及坐藥蕩胞湯, 無不有子也.<sup>13)</sup>

논하여 가로되, 무릇 사람이 자식이 없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五勞七傷으로 虛羸百病에 이른 까닭이니 그러므로 후사가 끊기는 질환이 있다. 무릇 그것을 치료하는 법은 남편은 七子散을 복용하고, 부인은 紫石門冬丸과 坐藥, 蕩胞湯을 복용하면 자식이 없지 않을 수 없다.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 求子門에 수록한 七子散, 朴硝蕩胞湯, 坐藥,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白薇丸又方, 金城太守白薇丸, 慶雲散, 承澤丸, 大黃丸, 吉祥丸, 硝石大黃丸, 秦椒丸 총 13가지 처방들을 분석해 보면 남편에 쓰인 처방은 七子散, 慶雲散

11)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37-38.

12) 孫思邈 著. 朱邦賢 외 5인 校注. 千金翼方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pp.409-410.

13)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8.

2가지이고, 나머지 11가지 처방은 부인에게 쓰인 처방이다.<sup>14)15)16)</sup> 남편에게는 補陽藥류로 구성된 처방이 주가 되고, 부인에게는 補陽藥류뿐 아니라 五勞七傷으로 인하여 正氣가 쇠하여 생긴 痰飲이나 瘀血을 다스리는 약재로 구성된 처방이 주가 된다. 처방의 제형은 散劑, 湯劑, 丸劑, 坐藥으로 다양하다. 散劑로는 七子散·慶雲散, 湯劑로는 朴硝蕩胞湯, 丸劑로는 紫石(天)門冬丸·白薇丸·白薇丸又方·金城太守白薇丸·承澤丸·大黃丸·吉祥丸·硝石大黃丸·秦椒丸, 坐藥으로는 坐導藥方이 있다. 이중 丸劑가 9가지(69%)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孫思邈이 바라본 불임은 虛羸百病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긴 질환이기에 완만히 시간을 두고 치료하는 丸 형태의 제형을 주로 쓰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Table 1. List of prescription used in 'The letter about gaining child' of Beijiqianjinyaofang and Qianjinyifang

처방 이름	구성본초	적용성별/기대효과	치법	출전
七子散	五味子, 鍾乳粉, 牡荊子, 菟絲子, 車前子, 葶藶子, 石斛, 地黄, 薯蕷, 杜仲, 鹿茸, 遠志, 附子, 蛇床子, 芎藭, 山茱萸, 天雄, 人參, 茯苓, 黃耆, 牛膝, 桂心, 菴蓉, 巴戟天	男/ 行房生子	補法	千金要方, 千金翼方
朴硝蕩胞湯	朴硝, 牡丹, 當歸, 大黃, 桃仁, 細辛, 厚朴, 桔梗, 人參	女/ 必下積血及冷赤膿	下法	千金要

	赤芍藥, 茯苓, 桂心, 甘草, 牛膝, 橘皮, 附子, 蜚蠊, 水蛭	如赤小豆汁		方, 千金翼方
坐導藥方	皂莢, 山茱萸 (《千金翼》作苦瓠), 當歸, 細辛, 五味子, 乾薑, 大黃, 礬石, 戎鹽, 蜀椒	女/ 必下青黃冷汁	下法	千金要方, 千金翼方
紫石(天)門冬丸	紫石英, 天門冬, 當歸, 芎藭, 紫葳, 卷栢, 桂心, 烏頭, 乾地黄, 牡蒙 (《千金翼》作牡荊), 禹餘糧, 石斛, 辛夷, 人參, 桑寄生, 續斷, 細辛, 厚朴, 乾薑, 食茱萸, 牡丹, 牛膝, 柏子仁, 薯蕷, 烏賊骨, 甘草	女/ 以腹中熱爲度	補法	千金要方, 千金翼方
白薇丸	白薇, 細辛, 防風, 人參, 秦椒, 白蘘, 桂心, 牛膝, 秦艽, 蕪荑, 沙參, 芍藥, 五味子, 白僵蠶, 牡丹, 螻蛄, 乾漆, 柏子仁, 乾薑, 卷栢, 附子, 芎藭, 桃仁, 紫石英, 鍾乳, 乾地黄, 白石英, 鼠婦, 水蛭, 虵蟲, 吳茱萸	女/ 小覺有異	下法	千金要方
白薇丸又方	白薇, 乾地黄, 乾薑, 車前子, 蜀椒, 紫石英, 藥本, 石膏, 菴藺子, 卷栢, 澤蘭, 赤石脂, 白龍骨, 遠志, 麥門冬, 茯苓, 太乙餘糧, 當歸, 芎藭, 蛇床子, 白芷, 覆盆子, 桃仁, 人參, 桂心,	女/ 覺有娠	補法	千金要方, 千金翼方

14)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38-43.

15) 孫思邈 著. 朱邦賢 외 5인 校注. 千金翼方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pp.145-147.

16) 이중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白薇丸又方, 金城太守白薇丸, 承澤丸, 大黃丸, 吉祥丸, 硝石大黃丸, 秦椒丸 9가지 처방은 『備急千金要方』 原文에는 그 方名이 각각 紫石門冬丸, 白薇丸, 白薇丸又丸, 金城太守白薇丸, 承澤丸, 大黃丸, 吉祥丸, 硝石大黃丸, 秦椒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劑型이 丸劑이므로 方名을 “丸”으로 통일하여 논하였다.

金城太守白 薇丸	蒲黃, 細辛, 橘皮 白薇, 細辛, 人參, 杜蘅, 牡蒙, 厚朴, 半夏, 白僵蠶, 當歸, 紫苑, 牛膝, 沙參, 乾薑, 秦艽, 蜀椒, 附子, 防風	女/ 覺有娠	下 法	千 金 要 方
慶雲散	覆盆子, 五味子, 菟絲子, 天雄, 石斛, 白朮, 桑寄生, 天門冬, 紫石英	男	補 法	千 金 要 方, 千 金 翼 方
承澤丸	梅核仁, 辛夷, 葛上亭長, 洩硫, 蘘木, 澤蘭子	女	下 法	千 金 要 方, 千 金 翼 方
大黃丸	大黃, 柴胡, 朴硝, 乾薑, 芎藭, 蜀椒, 茯苓	女/ 服藥五日 微下, 十日下血 , 二十日 下長蟲及 青黃汁, 三十日病 除, 五十 日肥白	下 法	千 金 要 方
吉祥丸	天麻, 柳絮, 牡丹, 茯苓, 乾地黃, 桂心, 五味子, 桃花, 白朮, 芎藭, 覆盆子, 桃仁, 菟絲子, 楮實子	女	補 法	千 金 要 方
硝石大黃丸	硝石(朴硝亦得), 大黃, 人參, 甘草	女	下 法	千 金 要 方
秦椒丸	秦椒, 天雄, 玄參, 人參, 白朮, 鼠婦, 白芷, 黃耆, 桔梗, 露蜂房, 白僵蠶, 桃仁, 螻蛄, 白薇, 細辛, 蕪荑, 牡蒙, 沙參, 防風, 甘草, 牡丹皮, 牛膝,	女/ 若有所去 如豆汁鼻 涕, 此是 病出	下 法	千 金 要 方

卷栢, 五味子, 芍藥, 桂心, 大黃, 石斛, 白朮, 柏子仁, 茯苓, 當歸, 乾薑, 澤蘭, 乾地黃, 芎藭, 乾漆, 白石英, 紫石英, 附子, 鐘乳, 水蛭, 虵蟲				
---	--	--	--	--

3) 처방 중 다용 약재 분석

求子門 처방에 쓰인 본초는 총 103종의 약재이  
며, 103종의 약재에 대하여 어떤 처방에 몇 번 쓰  
였는지 모두 조사하였다. 이 중 3회 이상 쓰인 본초  
에 대하여 사용 횟수와 사용된 처방명을 아래 표2  
로 정리하였다.

Table 2. Counting list of medicine used in  
'The letterhe letter about gaining child' of  
Beijiqianjinyao and Qianjinyifang

본초명	數	사용된 처방 이름
人參	8	七子散, 朴硝蕩胞湯,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白薇丸又方, 金城太守白薇丸, 硝石大黃丸, 秦椒丸
桂心	7	七子散, 朴硝蕩胞湯,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白薇丸又方, 吉祥丸, 秦椒丸
芎藭	7	七子散,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白薇丸 又方, 大黃丸, 吉祥丸, 秦椒丸
乾薑	7	七子散,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白薇丸又方, 大黃丸, 吉祥丸, 秦椒丸
茯苓	7	七子散, 朴硝蕩胞湯, 白薇丸, 白薇丸又方, 大黃丸, 吉祥丸, 秦椒丸
細辛	7	朴硝蕩胞湯, 坐導藥方,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白薇丸又方, 金城太守白薇丸, 秦椒丸
當歸	6	朴硝蕩胞湯, 坐導藥方, 紫石(天)門冬丸, 白薇丸又方, 金城太守白薇丸, 秦椒丸
牛膝	6	七子散, 朴硝蕩胞湯,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金城太守白薇丸, 秦椒丸
五味子	6	七子散, 朴硝蕩胞湯, 坐導藥方, 白薇丸, 慶雲散, 吉祥丸
乾地黃	5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白薇丸又方, 吉祥丸, 秦椒丸
大黃	5	朴硝蕩胞湯, 坐導藥方, 大黃丸, 硝石大黃丸, 秦椒丸

桃仁	5	朴硝蕩胞湯, 白薇丸, 白薇丸又方, 吉祥丸, 秦椒丸
牡丹(皮)	5	朴硝蕩胞湯,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吉祥丸, 秦椒丸
附子	5	七子散, 朴硝蕩胞湯, 白薇丸, 金城太守白薇丸, 秦椒丸
紫石英	5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白薇丸又方, 慶雲散, 秦椒丸
甘草	4	朴硝蕩胞湯, 紫石(天)門冬丸, 硝石大黃丸, 秦椒丸
卷栢	4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白薇丸又方, 秦椒丸
石斛	4	七子散, 紫石(天)門冬丸, 慶雲散, 秦椒丸
蜀椒	4	坐導藥方, 白薇丸又方, 金城太守白薇丸, 大黃丸
白薇	4	白薇丸, 白薇丸又方, 金城太守白薇丸, 秦椒丸
厚朴	4	朴硝蕩胞湯, 紫石(天)門冬丸, 金城太守白薇丸
防風	3	朴硝蕩胞湯, 紫石(天)門冬丸, 金城太守白薇丸
天雄	3	七子散, 慶雲散, 秦椒丸
白朮	3	慶雲散, 吉祥丸, 秦椒丸
水蛭	3	朴硝蕩胞湯, 白薇丸, 秦椒丸
牡蒙	3	紫石(天)門冬丸, 金城太守白薇丸, 秦椒丸
鐘乳(粉)	3	七子散, 白薇丸, 秦椒丸
柏子仁	3	朴硝蕩胞湯, 紫石(天)門冬丸, 秦椒丸
朴硝	3	朴硝蕩胞湯, 大黃丸, 硝石大黃丸
覆盆子	3	白薇丸又方, 慶雲散, 吉祥丸
沙參	3	白薇丸, 金城太守白薇丸, 秦椒丸
菟絲子	3	慶雲散, 吉祥丸, 七子散
白僵蠶	3	白薇丸, 金城太守白薇丸, 秦椒丸
虵蟲	3	白薇丸, 秦椒丸, 朴硝蕩胞湯

아래 표3은 8회로 가장 많이 쓰인 人參부터 3회 이상의 빈도로 쓰인 虵蟲까지 求子門 약재의 본초 분류별, 귀경별, 효능별 분석을 정리한 것이다. 본초 분류별, 귀경별, 효능별 분석에 전국한의과대학 정식 공동교재인 본초학 교과서<sup>17)</sup>를 참조하되, 『본초

학』에 수재되지 않은 虵蟲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本草綱目精要』<sup>18)</sup>를 참조 하였다.

Table 3. Description of medicine about botanical knowledge used in 'The letterhe letter about gaining child' of Beijiqianjinyaofang and Qianjinyifang

본초명	분류	귀경	효능
人參	補氣藥	脾, 肺, 心	大補元氣 固脫生津 安神
桂心	溫裏藥	腎, 脾, 膀胱	補元陽 暖脾胃 除積冷 通血脈
芎藭	活血祛瘀藥	肝, 膽, 心包	活血行氣 祛風止痛
乾薑	溫裏藥	脾, 胃, 肺	溫中逐寒 回陽通脈
茯苓	利水退腫藥	心, 脾, 肺腎	利水滲濕 健脾寧心
細辛	發散風寒藥	肺, 膀胱	發汗散寒 宣肺平喘 利水消腫
當歸	補血藥	心, 肝, 脾	補血和血 調經止痛 潤燥滑腸
牛膝	活血祛瘀藥	肝, 腎	散瘀血 消癰腫
五味子	澀精縮尿止帶藥	肺, 心, 腎	收斂固澀 益氣生津 補腎寧
乾地黃	清熱涼血藥	心, 肝, 腎	清熱涼血 養陰生津
大黃	攻下藥	脾, 胃, 大腸, 肝, 心包	瀉熱通腸 涼血解毒 逐瘀經痛
桃仁	活血祛瘀藥	心, 肝, 大腸	活血祛瘀 潤腸通便
牡丹(皮)	清熱涼血藥	心, 肝, 腎	清熱涼血 活血散瘀
附子	溫裏藥	心, 脾, 腎	回陽補火 散寒除濕
甘草	補氣藥	心, 肺脾胃	和中緩急 潤肺 解毒 調和諸藥
卷栢	活血祛瘀藥	肝, 心	活血通經
石斛	補陰藥	胃, 腎	益胃生津 滋陰清熱

출. 영림사. 2016.

18) 钱远铭. 本草綱目精要. 广东. 广东科技出版社. 1990.

17) 전국한의과대학 공동교재편찬위원회. 본초학 [중판]. 서

蜀椒	溫裏藥	脾, 肺, 腎	溫中散寒 除濕止痛 殺蟲解魚醒毒
白薇	清虛熱藥	胃, 肝, 腎	清熱涼血 利尿通淋 解毒療瘡
厚朴	芳香化濕藥	脾, 胃, 肺, 大腸	燥濕消痰 下氣除滿
防風	發散風寒藥	肝, 脾, 膀胱	解表祛風 勝濕 止癢
天雄	溫裏藥	脾, 腎, 心	溫中 補虛 除濕 散寒 回陽退陰
白朮	補氣藥	脾, 胃	補脾益氣 燥濕利水 止汗安胎
水蛭	活血祛瘀藥	肝	破血 逐瘀 通經
鐘乳(粉)	礦物藥	腎, 胃, 肺	溫肺 壯陽 益精 補氣
柏子仁	安神藥	心, 腎, 大腸	養心安神 潤腸通便
覆盆子	澀精縮尿止帶藥	腎, 膀, 胱	益腎 固精 縮尿
沙參	補陰藥	肺, 胃	養陰清肺 祛痰止咳
菟絲子	補陽藥	肝, 腎, 脾	補肝腎 益精髓 明目 止瀉
白僵蠶	平肝息風藥	肝, 肺, 胃	息風止癢 疏散風熱 化痰散結 清熱解毒 清熱燥濕
虻蟲	活血祛瘀藥	肝	逐瘀血 破積 堅痞癥瘕

孫思邈 求子 처방에서 8차례에서 6차례 다 빈도로 쓰인 9가지 약제를 본초학적으로 분석하자면, 우선 人參은 補氣藥으로 『神農本草經』<sup>19)</sup>에서 主補五臟, 安精神, 定魂魄, 止驚悸, 除邪氣, 明目, 開心, 益智, 久服輕身, 延年한다고 수록하고 있다. 五臟을 補하되 君火인 心臟에 대해서 주로 작용한다. 桂心은 溫裏藥으로 辛甘大熱한데 溫補腎陽의 효능이 있고, 혈중의 滯氣를 잘 소통시킨다. 또한 그性は 行하여 引火歸源하므로 命門火衰, 下焦虛寒證과 腎陽不足으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즉, 桂心은 溫裏祛寒하고 下焦에 들어가서 補腎陽한다.

19) 鄒澍潤安 撰, 金善鎬 譯. 本經疏證·上. 대전. 周珉. 2012 p.62.

또한 通血脈하는 心臟기능을 돕는 효능도 있다. 芎藭은 活血祛瘀藥으로 차가워진 血을 덥혀 영긴 血맥이 돌아가게 하고 下焦를 따뜻하게 한다. 乾薑 또한 溫裏藥으로 腎陽을 보하여 回陽通脈하는 약제이다. 茯苓은 利水退腫藥으로 氣의 소통을 돕고 寧心하는 작용을 하며, 細辛은 發散風寒藥으로 下焦의 陽氣를 보하고 相火가 발동하도록 돕는다. 當歸는 대표적인 補血藥으로 心脾血虛를 다스리고 調經작용을 하며, 牛膝은 活血祛瘀藥으로 肝腎을 補益하고 下焦의 陰氣를 보충한다. 五味子は 澀精縮尿止帶藥으로 補腎 寧心하는 효과가 있다. 이로 보건데 孫思邈은 立論의 취지에 따라 불임증 치료에 活血祛瘀하는 瀉하는 약제도 썼지만 대체로 心·腎의 臟腑를 근본적으로 補하는 약제를 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 4) 灸法

求子門에 灸法으로 쓰인 혈자리는 총 5가지로 아래 표와 같다. 關元, 氣門, 泉門, 然谷이 각1회 언급되고, 胞門이 2회 언급되었다.

Table 4. List of acupuncture point used in 'The letter about gaining child' of Beijiqianjinyao and Qianjinyifang

혈자리	主治 및 위치
然谷	婦人絕子 在內踝前直下一寸
關元	婦人絕嗣不生, 胞門閉塞
胞門	婦人妊子不成, 若墮落, 腹痛, 漏見赤 婦人子臟閉塞, 不受精疼 在關元左邊二寸
氣門	婦人絕嗣不生 在關元旁三寸
泉門	婦人絕嗣不生, 漏赤白 在橫骨當陰上際

胞門穴은 灸法에서 다른 穴자리와 달리 두 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서 孫思邈이 중시하는 불임증 치료 빈용 穴자리로 여겨진다. 關元, 胞門, 氣門, 泉門은 소복부와 생식기 주변으로 자궁을 따뜻하게 보하고, 然谷은 足少陰腎經脈의 穴로 腎臟의 陽氣를

복돋아 불임 치료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5) 불임치료 상용처방의 순서 정립

孫思邈은 『備急千金要方』 求子門 治法에서 언급하지 않은 ‘次第’라는 단어를 『千金翼方』에서 강조하였다. 임상가로서 오랜 불임치료를 경험하고 『千金翼方』을 저술할 때에 이르러서 七子散, 朴硝蕩胞湯, 坐藥, 紫石(天)門冬丸 4가지 처방으로 순서를 갖춘 불임치료 常用方을 정립하여 불임치료의 대표적인 처방과 절차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論曰, 夫人求子者, 服藥須有次第, 不得不知, 其次第者, 男服七子散, 女服蕩胞湯, 及坐藥, 并服紫石門冬丸, 則無不得效矣. 不知此者, 得力鮮焉.<sup>20)</sup>

논하여 가로되, 무릇 사람이 자식을 구할 경우, 복약에 모름지기 차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차례라는 것은 남자는 七子散을 복용하고 여자는 蕩胞湯과 坐藥을 쓰고, 더불어 紫石門冬丸을 복용하면 곧 효과를 얻지 못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약효를 얻기가 어렵다.

4가지 불임치료 상용방의 적용 순서는, 첫째 鹿茸, 杜仲, 人參, 遠志, 山茱萸, 牛膝 등 약재로 구성된 七子散<sup>21)22)</sup>으로 남편의 腎精을 補하고, 둘째 大黃, 桃仁, 細辛, 蟄蟲, 水蛭 등 약재로 구성된 朴硝蕩胞湯<sup>23)24)</sup>으로 부인의 임신을 막는 자궁에 쌓였던 혈과 농을 배출하게 한다.<sup>25)26)</sup> 셋째 朴硝蕩胞湯을

쓰고 난 후 자궁과 질 내에 남은 惡物은 皂莢, 大黃, 礬石, 戎鹽, 蜀椒 등 약재로 구성된 坐藥<sup>27)28)</sup>으로 완전히 瀉下하게 한다.<sup>29)30)</sup> 그 후 天門冬, 當歸, 薯蕷, 人參, 卷栢 등으로 제조된 紫石(天)門冬丸<sup>31)32)</sup>을 복용하게 하여 朴硝蕩胞湯과 坐藥으로 瀉한 후 虛損된 氣血을 補하고 養陰益氣하여 부인이 수태하도록 도왔다. 즉, 朴硝蕩胞湯으로 먼저 자궁 내 적체된 膿血을 瀉하고 이어서 坐藥으로 모두 제거한 후 紫石(天)門冬丸으로 補함으로써 부인이 임신을 위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6) 처방복용과 음식섭취 및 房事法 지도

孫思邈은 養性에 관한 篇 즉 『備急千金要方·卷二十七養性』, 『千金翼方·卷十二養性』을 별도로 돌만큼 양생을 중요하게 여겼다. 『備急千金要方·卷二婦人方上·求子門』의 紫石門冬丸 및 白薇丸又方과 『千金翼

月水不調, 爲有冷血, 不受胎, 若澀酌下盡, 氣力弱, 大困不堪更服, 亦可二三服即止. 如大悶不堪, 可食酢飯, 冷漿一口, 即止. 然恐去惡物不盡, 不大得藥力, 若能忍服, 盡大好一日, 後仍著導藥. 千金翼方, 不用桔梗甘草.”

26) 孫思邈 著. 千金翼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60. “覆被少取汗, 汗不出, 冬日著火籠, 必下積血及冷赤膿, 如赤小豆汁. 本爲婦人子宮內有此惡物令然, 或天陰臍下痛, 或月水不調, 爲有冷血, 不受胎. 若澀酌下盡, 氣力弱, 大困不堪更服, 亦一日二三服即止. 如大悶不堪, 可食酢飯, 冷漿一口, 即止. 然恐去惡物不盡, 不大得藥力, 若能忍服, 盡大好一日, 後仍著導藥. 千金更有桔梗甘草, 各二兩.”

27)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9. “治全不產及斷緒, 服前朴硝蕩湯後, 著坐藥方.”

28) 孫思邈 著. 千金翼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60. “坐藥方.”

29)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9. “內婦人陰中, 坐臥任意, 勿行走急, 小便時去之, 更安新者, 一日一度. 必下青黃冷汁, 汁盡即止, 可幸어, 卽有子. 若未見病出, 亦可至十日安之. 一本別有葶藶砒霜 各半兩, 此藥爲服朴消湯, 恐去冷惡物出不盡, 以導藥下之. 值天陰冷不疼, 不須著導藥, 亦有著鹽, 爲導藥者. 然不如此藥, 其服朴消湯, 後卽安導藥, 經一日外, 服紫石門冬丸.”

30) 孫思邈 著. 千金翼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60. “內子門中, 坐臥任意, 勿行走急, 小便時即去之, 仍易新者. 一日當下青黃冷汁, 汁盡止, 卽可幸御, 自有子. 若未見病出, 亦可至十日安之. 千金無葶藶. 一本又有砒霜三分. 著藥後一日, 灑服紫石天門冬丸.”

31)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9. “紫石門冬丸, 治全不產及斷緒方.”

32) 孫思邈 著. 千金翼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60. “紫石天門冬丸.”

20) 孫思邈 著. 朱邦賢 외 5인 校注. 千金翼方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p.145.

21)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8. “七子散, 治丈夫風虛目暗, 精氣衰少無子, 補不足方.”

22) 孫思邈 著. 千金翼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60. “七子散, 主丈夫風虛目闇, 精氣衰少無子, 補不足方.”

23)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9. “朴硝蕩胞湯, 治婦人立身以來全不產, 及斷緒久不產三十年者方.”

24) 孫思邈 著. 千金翼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60. “蕩胞湯, 主婦人斷緒二三十年, 及生來無子, 并數數失子, 服此皆有子, 長命無病方.”

25)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9. “覆被取少汗, 汗不出, 冬日著火籠之, 必下積血及冷赤膿, 如赤小豆汁. 本爲婦人子宮內有此惡物使然, 或天陰臍下痛, 或

方·卷五婦人一·求子門』의 七子散에서도 처방뿐 아니라 食餌와 性생활 지도를 함께 하고 있다.

不禁房室, 夫行不在, 不可服. 禁如藥法.

성생활을 금하지 않았거나 남편이 출행하여 부재한 경우에는 복용할 수 없다. 금기는 다른 약의 법과 같다.<sup>33)</sup>

慎豬雞生冷, 酢滑魚蒜驢馬牛肉等, 覺有娠即停. 三月正擇食時, 可食牛肝及心. 至四月、五月不須, 但不可故殺, 令子短壽, 遇得者大良.<sup>34)</sup>

돼지, 닭, 날 것, 찬 것, 신 것, 기름진 것, 물고기, 마늘, 당나귀·말·소고기 등은 삼가고, 임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白薇丸又方을) 즉시 복용하기를 멈추어야 한다. 임신 3개월이 되면 식사 시를 바르게 택하고, 소의 간과 심장을 먹는 것이 가하다. 사오월에 이르러서는 불필요하다. 단 일부러 죽여서는 안 되니, 자식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우연히 얻은 경우는 괜찮다.

忌生冷醋滑豬雞魚蒜油麵, 不能酒者, 蜜和丸服亦佳. 一方加覆盆子二兩, 行房法一依素女經.<sup>35)</sup>

날것과 차가운 것 신 것과 미끄러운 것, 돼지와 닭고기, 물고기, 마늘, 기름진 것, 면을 피하여야 하고, 술을 못 먹는 자는 (七子散을) 꿀을 섞어 환으로 만들어 복용해도 역시 좋다. 어떤 방에는 복분자 2냥을 가하였다. 방사법은 오로지 『소녀경』에 의지한다.

치법으로 처방과 함께 피하여야 할 음식과 대체 복용법, 임신 후 따라야 할 식이법, 房事法을 함께 언급하였다. 白薇丸又方을 쓸 때에 식이를 각별히 지도해야 하고, 특히 임신 3개월에는 소의 간과 심장을 먹는 것이 가하다고 한 이유는 五勞七傷으로 인해 손상된 장부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여겨진다.

또한 紫石門冬丸의 처방에 복용 行房 전 먼저 금욕하도록 한 것과 七子散의 처방에 『素女經』을 따르도록 한 이유는 腎精을 먼저 보충하고 또한 임신을 위해 주의하여 쓸 수 있게 지도하기 위함이라고 파악된다.

### III. 考察

#### 1. 宋代 및 明·清代 불임증 치료에 미친 영향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의 求子門 醫論 및 불임치료 처방은 宋代 『婦人大全良方』에서 비중 있게 인용되고 있다.

##### 千金翼求子方論第四

千金論曰, 夫婦人之別有方者, 以其血氣不調, 胎妊生產、崩傷之異故也. 是以婦人之病, 比之男子, 十倍難療. (중략) 若其相生, 并遇福德者, 仍須依法如方, 避諸禁忌, 則所誕兒子, 盡善盡美, 難以具陳矣.<sup>36)</sup>

千金翼方·求子方論第四 『千金』에서 논하여 말하길, 무릇 부인에 별도로 方을 두는 것은 血氣가 조화롭지 못한 것과 임신과 출산, 血崩으로 손상되는 차이가 있어서이다. 그러므로 부인의 병은 남자의 병과 비교하여 열배나 치료하기 어렵다. (중략) 만약 그 상생과 더불어 복덕을 만나는 경우는 모름지기 법에 의지하여 처방을 갈게 하고 여러 금기를 피한즉 태어나는 자식이 선을 다하고 미를 다함을 모두 말하기가 어렵다.

孫思邈이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 求子門 醫論에서 밝히고 있는 바인 婦人만의 특성을 구별하여 별도로 “婦人方”을 세운 취지와 임신을 위한 선행 조건과 주의사항들에 관한 글을 수록하였다. 『千金要方』에서 “以其胎妊, 生產, 崩傷之異故也.”, “十四以上”, “以防不虞也”<sup>37)</sup>라고 기록한 글을 『婦人大

33)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40.

34)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40.

35) 孫思邈 著. 朱邦賢 외 5인 校注. 千金翼方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p.145.

36) 陳子明. 婦人大全良方. 四庫全書官. 中國醫學大系 10. 서울. 驪江出版社. 1987. pp.601-602.

37)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全良方』에서는 “以其血氣不調，胎妊生產，崩傷之異故也.”，“十四歲以上”，“以防不意也”로 기록하여 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備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의 求子門 내용과 거의 일치하게 인용하여 『婦人大全良方·卷九 求嗣門』에 실고 있다. 또한 『千金翼方』에서 七子散, 蕩胞湯 및 坐導藥, 紫石(天)門冬丸의 붙임치료 상용방의 次第를 알아야 한다고 논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더불어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의 붙임증 치료 처방인 七子散, 慶雲散, 蕩胞湯, 坐導藥, 紫石(天)門冬丸, 白薇丸, 金城太守白薇丸이 『婦人大全良方』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sup>38)</sup> 특히 白薇丸과 金城太守白薇丸은 각각 『千金翼方』과 『千金要方』으로 출전을 명시하여 수록하고 있다.

論曰，夫人求子者，服藥須知次第，不可不知。其次第者，謂男服七子散，女服蕩胞湯及坐導藥，并服紫石門冬元，則無不效矣。不知此者，得力鮮焉。<sup>39)</sup>

논하여 말하길, 무릇 사람이 자식을 얻으려는 자는 약을 복용함에 모름지기 次第를 알아야 하고 모르는 것은 불가하다. 그 次第 라는 것은 남자는 七子散을 복용하고, 여자는 蕩胞湯 및 坐導藥과 더불어 紫石門冬元을 복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곧 효과가 없는 경우가 없다. 이것을 모른다면 효험을 얻기가 드물다.

이로 보건데 唐代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의 “求子門”은 이후 宋代에 최초 부인과 전문서적인 『婦人大全良方』의 “求嗣門”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pp.37-38.

38) 陳子明. 婦人大全良方. 四庫全書官. 中國醫學大系 10. 서울. 驪江出版社. 1987. p.603. “七子散，主丈夫，風虛目暗，精氣衰少無子，補不足方。”慶雲散，主丈夫，陽氣不足，不能施化，施化無成。”p.604. “蕩胞湯，治婦人，立身已來，全不產育，及斷續久，不產三十年者。”坐導藥，治婦人，全不產，及斷續，服前蕩胞湯，惡物不盡，用此方。”紫石英元，又名紫石門冬元。”p.606. “千金療月水不利閉塞，絕產十八年，服此藥，二十八日有子，金城太守白薇元。”千金翼白薇元，主久無子，或斷緒上熱下冷，百病皆療。”

39) 陳子明. 婦人大全良方. 四庫全書官. 中國醫學大系 10. 서울. 驪江出版社. 1987. p.603.

明代 薛己의 『薛氏醫案』 중 『校注婦人良方』에도 孫思邈의 求子門 醫論을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千金翼求子方論第四

論曰，夫婦人之居幽闕，類多血氣不調，胎妊生產崩傷之異，比之男子，十倍難療。其或七情失宜，或飲食無度，或胎瘡未愈而遽合，或登廁風入陰戶，便成痼疾。若欲求子，交感之時，必天日清明，神思清爽，氣血諧和，與天德福德相合。夫婦本命，五行相生，并本命命旺而生者，則壽而賢，否則不可得也。<sup>40)</sup>

千金翼求子方論第四 논하여 말하길, 무릇 부인의 거처는 깊고 외진 곳이어서 血氣가 조화롭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임신과 출산 혈봉에 의한 손상이 있다는 다름이 남자의 병과 비교하여 열배나 치료하기 어렵다. 혹여 七情이 조화롭지 못하거나, 음식을 절제하지 않았거나, 분만으로 생긴 창상이 아물지 않았는데 부부생활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風이 陰戶로 들어오면 곧 痼疾이 생긴다.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가질 때 반드시 날이 맑고, 정신과 마음이 맑고 상쾌하며, 氣血이 조화롭고, 天德과 福德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부부의 타고난 사주의 오행이 상생하고, 더불어 근본 운명이 좋게 자식이 태어난 경우에는 장수하고 어질며,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얻을 수 없다.

기록상으로는 『校注婦人良方』에서 『千金翼方』을 인용한 듯 썼지만 『千金翼方』 求子門 醫論에는 求子方의 “次第”를 알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있을 뿐이므로 『千金翼方』 보다는 『千金要方』의 醫論에서 서술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校注婦人良方』에서 “論曰，夫婦人之居幽闕”，“類多血氣不調，胎妊生產崩傷之異，比之男子，十倍難療”，“其或七情失宜，或飲食無度，或胎瘡未愈而遽合，或登廁風入陰戶，便成痼疾.”라고 한 내용은 『千金要方』의 “經言，婦人者，衆陰所集，常與濕居”，“夫婦人之別有方者，以其胎妊生產崩傷之異故也。是以婦人之病，比之男子十倍

40) 陳子明 編. 薛己 注. 校注婦人良方. 薛己 等撰.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809.

難療.”, “生熟二臟虛實交錯, 惡血內漏, 氣脈損竭, 或飲食無度, 損傷非一, 或瘡瘍未愈, 便合陰陽, 或便利於懸廁之上, 風從下入, 便成十二癩疾, 所以婦人別立方也.”<sup>41)</sup>라고 한 내용을 편집하여 다르게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크게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千金要方』 求子門 醫論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임신을 위한 부부생활 시 주의하여 택해야 할 날과 마음가짐에 관하여 『校注婦人良方』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다. 『千金翼方』 불임치료 상용방 次第에 관한 내용도 간략화 해서 인용하고 있다.

論曰, 夫人求子服藥, 須知次第, 男服七子散, 女服蕩胞湯, 紫石英門冬丸及坐導藥, 則無不效矣.<sup>42)</sup>

논하여 말하길, 무릇 사람이 자식을 얻기 위해 약을 복용할 때, 次第를 모름지기 알아야한다. 남자는 七子散을 복용하고, 여자는 蕩胞湯과 紫石英門冬丸을 복용하고 坐導藥을 쓰면 효과가 없지 않다.

또한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 求子門에서 언급한 처방을 소개하는 내용이 약간 편집되거나 축약되어 있지만 동일한 처방을 『校注婦人良方』에도 실고 있다.<sup>43)44)45)46)47)</sup>

한편 朱橚이 명나라 초기에 엮은 대형 의학방서인 『普濟方』卷三百三十六·妊娠諸疾門·胤嗣』에도 孫思邈의 求子門 醫論과 처방이 수록되어있다.

婦人所以無子者, 衝任不足腎氣虛寒也. 內經云女子二七, 天癸至任脈通, 太衝脈盛陰陽和, 故能有子. 若衝任不足腎氣虛寒, 不能繫胞, 故令無子. 亦有本於夫病婦疹者, 當原其所因而調, 治之要之, 男服七子散, 女服紫石門冬丸, 及坐導藥, 蕩胞湯, 無不有子也.<sup>48)</sup>

부인이 자식이 없는 것은 衝任脈이 부족하고 腎氣가 虛寒하기 때문이다. 『黃帝內經』에서 말하길 여자가 14세에 天癸가 이르러 任脈이 통하고, 太衝脈이 왕성하여 부부가 화합하면 능히 자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衝任脈과 任脈이 부족하고, 腎氣가 虛寒하면 능히 胞를 매어 둘 수 없으니 그러므로 無子하게 된다. 또한 본래 남편이 병이 있고 부인이 앓는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 원인된 바를 캐내어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요점이니, 남편은 七子散을 복용하고, 부인은 紫石門冬丸을 복용하고, 坐導藥, 蕩胞湯을 쓴다면 자식이 없지 않게 된다.

『普濟方』에서는 孫思邈과 달리 불임의 원인으로 부인의 衝任不足, 腎氣虛寒을 주원인으로 보았고, 『黃帝內經』을 인용하여 불임증의 병인·병기를 논증하

41)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37.  
42) 陳子明 編. 薛己 注. 校注婦人良方. 薛己 等撰.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809.  
43) 陳子明 編. 薛己 注. 校注婦人良方. 薛己 等撰.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p.809-810. “七子散, 主丈夫氣虛, 精衰少無子. 牡荊子, 五味子, 兔絲子, 車前子, 菥蓂子, 山藥, 石斛, 熟地黃, 杜仲, 鹿茸, 遠志 各八分, 附子, 蛇床子, 川芎 各六分, 山茱萸, 天雄, 各五分, 桂心 十分, 白茯苓, 牛膝, 人參, 黃芪, 各五分, 巴戟 十二分, 苡蓉 七分, 鍾乳粉 八分. 上為末, 每服錢許, 日二服, 酒調. 一方加覆盆子二錢.”  
44) 陳子明 編. 薛己 注. 校注婦人良方. 薛己 等撰.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810. “慶雲散, 主丈夫陽氣不足, 不能施化. 覆盆子, 五味子, 各二升, 兔絲子 一升, 白朮 炒, 石斛 各三兩, 麥門冬, 天雄 各九兩, 紫石英 二兩, 桑寄生四兩. 上為末, 食后酒服錢許, 日三服. 或米飲調冷, 去桑寄生, 加細辛 四兩, 陽事少, 去石斛, 加檳榔 十五箇.”  
45) 陳子明 編. 薛己 注. 校注婦人良方. 薛己 等撰.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810. “蕩胞湯, 治婦人全不產育. 朴硝, 牡丹皮, 當歸, 大黃 蒸一飯久, 桃仁 各三兩, 細辛, 厚朴, 苦梗, 赤芍藥, 人參, 茯苓, 桂心, 甘草, 牛

膝, 陳皮 各二兩, 附子 炮, 一兩半, 蜚蠊 炒焦, 去翅足 水蛭 炒, 各十枚. 上每服六錢, 酒水合盞半, 煎, 日三服, 夜一服, 少頃下血膿. 力弱者, 用一二服. 惡物不盡, 方用坐導藥.”  
46) 陳子明 編. 薛己 注. 校注婦人良方. 薛己 等撰.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810. “坐導藥, 治婦人全不產, 及斷續, 更服蕩胞湯. 皂角 去皮, 一兩, 吳茱萸, 當歸, 大黃, 晉礬 枯, 戎鹽, 川椒 各二兩, 五味子, 細辛, 乾薑 各三兩, 一方無茱萸, 有葶藶, 苦瓠 各三分. 上為末, 以絹袋盛, 如指狀入陰中, 如欲小便去之, 一日仍易之. 如子宮有冷水, 天陰則痛, 須候下盡而止藥. 每日早晚, 用苦菜煎湯薰洗. 著藥後一日, 服紫石英丸.”  
47) 陳子明 編. 薛己 注. 校注婦人良方. 薛己 等撰.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810. “紫石英丸. 紫石英, 天門冬 各三兩, 紫葳 牡蛎 各二兩 粉草 一兩半, 桂心, 川芎, 卷柏, 烏頭 炮, 熟地黃 乾, 辛夷仁, 禹餘糧 煨 醋淬, 當歸, 石斛 各三兩, 烏賊骨, 牛膝, 薯蕷 各六分, 桑寄生, 人參, 牡丹皮, 乾薑, 厚朴, 續斷, 食茱萸, 細辛 各五分, 栝子仁 一兩. 上為末, 蜜丸桐子大. 每服二十丸, 溫酒下.”  
48) 朱橚 編著. 普濟方. 四庫全書官. 中國醫學大系 26. 서울. 驪江出版社. 1987. p.2.

고 있다. 그런데 불임증 원인에 대하여 孫思邈과 차이가 있다. 求子門에서 정립한 상용처방인 七子散, 紫石(天)門冬丸, 坐導藥, 滂(盪)胞湯을 내세워 불임의 근본 원인에 부합되게 치료하는 요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로 보건데 孫思邈의 求子門 처방이 明代에 까지 유효하게 불임증 치료에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清代 張璐가 지은 종합 의학서인 『張氏醫通』에서도 불임증의 병인을 孫思邈의 求子門을 인용하여 언급하고 있고, 孫思邈의 상용처방인 七子散, 紫石(天)門冬丸, 朴硝滂胞湯 이외에 孫思邈의 求子門에 기재된 慶雲散과 白薇丸을 소개하고 있다.

千金云凡人無子, 當爲夫妻俱有五勞七傷, 虛羸百病所致, 故有絕嗣之患. 夫治之之法, 男服七子散, 女服紫石門冬丸, 無不有子也. 若丈夫陽氣不足, 不能施化, 慶雲散主之. 婦人立身以來全不產, 及斷乳後, 十年二十年不產, 此胞門不淨, 中有瘀積結滯也. 朴硝滂胞湯主之. 婦人月水不利, 閉塞絕產者, 白薇丸主之.<sup>49)</sup>

『千金』에서 말하길 무릇 사람이 無子한 것은 마땅히 부부가 함께 五勞七傷이 있어 虛羸百病에 이른 까닭이니 고로 후사가 끊기는 근심이 있게 된다. 무릇 치료하는 법으로 남편은 七子散을 복용하고, 부인은 紫石門冬丸을 복용하면 자식이 없지 않게 된다. 만약 남편의 陽氣가 부족하여 능히 射精을 못한다면 慶雲散으로 치료한다. 부인이 전혀 출산하지 못하였거나 授乳를 끊은 후 십년·이십년 동안 출산을 못한 것은 胞門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 그 중에 瘀血이 쌓이고 영기어 막힌 것이다. 朴硝滂胞湯으로 다스린다. 부인의 월경이 순조롭지 못하여 폐색되어 출산이 끊긴 것은 白薇丸로 주관한다.

孫思邈의 求子門에서 불임의 원인을 부부의 五勞七傷으로 인한 虛羸百病으로 보았던 醫論과 七子散 및 紫石門冬丸 등 처방이 宋·明代를 거쳐 清代까지 영향을 미쳐 전해져 왔다는 것을 『張氏醫通』의 원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2. 현대 불임치료 임상적 활용 가능성 탐색

현대의 임상 현장에서도 불임에 대하여 인공 시술이 아니라 孫思邈이 바라보았던 관점과 동일하게 불임이 감정과 정서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인식아래 효과적 불임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강명자<sup>50)</sup>는 불임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을 통해서 19종의 불임 임상증상에서 신경예민이 71.81%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sup>51)</sup>. 박춘선<sup>52)</sup>은 『난임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연구』에서 난임 문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난임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을 이용한 대상자들이 비이용자들에 비해 정신적 고통 해소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영희<sup>53)</sup>는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과 관련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임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 부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현대 서양의학의 임상메타분석논문<sup>54)</sup>을 통해서도 불임률을 낮추고 임신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불임환자에 대하여 심리 사회적 접근으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찰들은 불임의 병인을 ‘五勞七傷’과 같은 心身의 문제로 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孫思邈 求子門 醫論의 현대 불임 치료 임상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준다고 하겠다. 감정과 정서상 문제가 유발하는 氣의 부조화를

- 50) 강명자. 불임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988. 2(1). pp.35-76.
- 51) 강명자. 불임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988. 2(1). p.41. “임상증상을 분석해 보면 肝氣鬱結이 가장 많고, 腎虛, 衝任虛, 刊經濕熱, 瘀血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임초기에 서둘러서 치료를 시작함이 좋으며 유산이나 분만 혹은 속발성불임을 막기 위하여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고 언제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불임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 52) 박춘선. 난임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53) 이영희.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18.
- 54) Yoon Frederiksen et al.. Efficacy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psychological and pregnancy outcomes in infertile women and m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J Open. 2015.

49) 張璐 著. 張氏醫通. 서울. 一中社. 1992. p.525.

孫思邈은 求子門 처방과 뜸을 통해서 조화롭게 함으로써 해소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편 다른 임상 증례보고 논문에서는 여성 불임증은 여성의 감정적 또는 정서적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孫思邈이 불임증의 원인을 ‘五勞七傷’으로 바라본 맥락과 통하지만, 孫思邈은 불임증을 虛羸百病의 일환으로 본 것과 다르게 불임여성이 겪는 스트레스가 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감정과 정서상의 문제를 肝機能을 중심으로 변증하여 치료하고 있다. 예컨대 조진형<sup>55)</sup>은 단각 자궁으로 인한 원발성 불임 환자 1례의 임상 보고에서 환자를 肝鬱證 및 瘀血證으로 변증하여 小柴胡湯合桂枝茯苓丸을 처방하여 치료하였다. 또한 정아룡<sup>56)</sup>도 調經種玉湯과 溫經湯을 기본으로 하여 肝鬱과 濕痰의 제반증상을 호전시켜 임신이 되게 하였다. 이들은 감정과 정서가 유발한 난임을 孫思邈이 心腎의 문제로 접근한 것과는 다르게 肝의 문제로 보았지만, 氣의 차원에서 감정과 정서가 유발한 부조화된 氣를 탕약을 써서 조화롭게 한다는 한의학적 원리는古今이 다르지 않다.

문현주<sup>57)</sup>는 혈중 항물러관호르몬(AMH) 저하로 진단 받은 난임 환자를 한방치료 후 임신하게 한 4

건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혈중 항물러관호르몬(AMH)은 난포의 파립막 세포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난포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AMH의 수치도 점차 낮아지게 되는데, 주로 난소기능의 저하에 의한 난임과 폐경기 여성들의 진단에 확인되는 호르몬이다. 본 임상보고 4례 모두 腎虛를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였으며, 저자는 증례 1, 2에서는 腎기능을 돕는 한의학적 치료로 腎虛가 개선되면서 임신가능성을 높였다고 추론하고, 증례 3, 4에서도 腎기능을 보강하는 치료가 AMH 농도저하로 대표되는 난소기능 저하 난임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았고, 瘀血, 肝氣鬱結 등 병합된 다른 변증에 대한 한방치료 또한 난임 환자의 임신과 AMH 수치 상승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의 난임 치료에 있어서도 瘀血을 치되 ‘五勞七傷’으로 인해 손상된 心腎을 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孫思邈의 불임치료 원칙이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증례를 확인할 수 있다.

위효선<sup>58)</sup>은 자궁내막증을 한방치료 한 후 자연임신 되도록 한 케이스에 대하여 자궁내막증은 瘀血을 가장 중요한 病因病機로 보고 있지만, 자궁내막증이 유발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正氣의 허약으로 파악하고, 월경 주기의 배란 전후기를 구분하여 補虛瀉實하는 처방을 운용하였던 한의학적 치료 방법이 불임증 치료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신을 기대하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양방의 자궁내막증 치료가 주로 수술과 보조 생식술이라는 현실에서 그 치료 과정에서 가임능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한방적인 치료 혹은 수술 후 한방 치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년 불임을 이겨낸 전문직 남성의 감동적 수기<sup>59)</sup>

55) 조진형 외 6인. 단각 자궁으로 인한 원발성 불임 환자 1례의 임상 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 2005. 18(3). pp.242-249.

56) 정아룡 외 3인. 원인불명으로 진단받은 속발성 불임환자 1례의 1임상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 2007. 20(4). pp.234-248.

57) 문현주, 조현주. 혈중 항물러관호르몬 저하를 진단 받은 난임 환자의 한방치료 후 임신 4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5. 28(2). pp.141-142. “한방 진단을 통해 4례 모두 腎虛를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였으며, 증례 1의 경우 肝氣鬱結이 동반된 것으로 변증하고, 증례 2, 3, 4의 경우 瘀血과 肝氣鬱結이 동반된 것으로 변증하였다. (중략) 위 증례 1, 2에서는 腎기능을 돕는 한의학적 치료로 腎虛가 개선되면서 임신가능성을 높였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증례 3, 4에서는 한약, 침구치료 직전 AMH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腎기능을 돕는 한의학적 치료가 AMH 수치 호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腎기능을 보강하는 치료가 AMH 농도저하로 대표되는 난소기능 저하 난임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瘀血, 肝氣鬱結 등 병합된 다른 변증에 대한 한방치료 또한 난임 환자의 임신과 AMH 수치 상승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58) 위효선.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복강 내 유착으로 체외수정 시술 권고 받은 후 한방 치료로 임신된 난임 환자의 증례 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0. 23(3). pp.213-220.

59) 신동아. 기사(수기). 9년 불임 이겨낸 전문직 남성의 감동 수기. 2008년 03월호. “솔직히 불임클리닉 의사들에게 화가 나기도 한다.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무엇보다 부모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니 불임 시술에만 올인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좋은 것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부터 기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더라면 지난 시간은

에서 알 수 있듯이, 난임을 겪는 부부에게 불임의 불안을 이겨내갈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쇠약해진 난임증 환자의 心身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인공수정기술만을 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신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치법이 없어 오랜 시간 불임으로 마음 고생할 환자들에게 본 논문을 통해 밝힌 孫思邈의 치료원칙과 처방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 IV. 結論

孫思邈은 자식을 얻기 위한 우선 조건으로 부부의 신체적인 조건보다 조상의 뒷자리와 부부의 사주상의 조건을 삼았고, 그 다음 불임의 주원인을 五勞七傷으로 들었다. 孫思邈이 말하는 五勞七傷은 주로 감점 및 정서와 연관된 문제이다. 孫思邈은 임상가로 오랜 불임치료를 경험하고 『千金翼方』을 저술할 때 이르러서 七子散, 朴硝蕩胞湯, 坐藥, 紫石(天)門 冬丸 4가지 처방으로 부부를 함께 치료하는 常用方 순서를 정립하였다. 처방과 더불어 피하여야 할 음식과 대체 복용법, 房事法을 함께 언급하였다.

『備急千金要方·卷二婦人方上·求子門』과 『千金翼方·卷五婦人一·求子門』에 수록된 처방은 총 13종류로 여성 불임용 처방이 11종류, 남성 불임용 처방이 2종류이고, 灸法 혈 자리는 총 5자리이다. 최고 빈용 약물은 人參으로, 총 13개의 처방 중 8개의 처방에 사용되어 과반(61.5%)이 넘게 쓰였고, 그다음으로 桂心, 芎藭, 乾薑, 茯苓, 細辛이 각7회, 當歸, 牛膝, 五味子が 각6회, 乾地黃, 大黃, 桃仁, 牡丹(皮), 附子, 紫石英이 각5회씩 사용되었다. 6회 이상 쓰인 약물의 귀경 및 효능 주치를 분석하여 보면, 孫思邈의 불임 처방은 立論의 취지에 따라 五勞七傷으로 인하여 虛하게 된 心腎을 다스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虛勞로 인하여 생긴 자궁 내 惡物을 제거하는 活血祛瘀하여 瀉하는 약제도 썼지만 근본적으로 五勞七傷으로 먼저 주로 손상되는 장부인 心·腎을 補하는 약재를 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備急

千金要方·卷二婦人方上·求子門』에 수록된 灸法에 쓰는 총 5가지 穴자리 중 關元, 氣門, 泉門, 然谷은 각1회 언급되었고 胞門은 2회 언급되었다. 關元, 胞門, 氣門, 泉門은 소복부와 생식기 주변으로 자궁을 따뜻하게 보하고, 然谷은 足少陰腎經脈의 穴자리로 腎臟에 腎陽의 기운을 제고함으로써 불임 치료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卷二婦人方上·求子門』과 『千金翼方·卷五婦人一·求子門』은 이후 宋代에 최초 전문부인과의 대표적인 텍스트라 할 수 있는 『婦人大全良方』의 醫論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婦人大全良方·求嗣門』에서 『千金方』 醫論을 비중 있게 인용하고 동일한 처방을 썼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薛氏醫案·校注婦人良方』, 『普濟方』, 『張氏醫通』에 수록된 불임증 관련 원문을 통해 孫思邈의 求子門 醫論과 처방이 宋·明代를 거쳐 清代까지 계속하여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과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임상논문을 통하여 孫思邈이 불임증을 五勞七傷으로 인한 虛損百病, 즉 心身의 문제로 인식하여 치료한 이론과 처방 방식(治法)이 현대의 실제 임상에서도 활용 가능함을 탐색해 볼 수 있었다.

唐代 대표적인 임상가인 孫思邈이 저작한 『備急千金要方』 및 『千金翼方』 求子門에 담긴 내용은 오늘날 불임 환자들에게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孫思邈이 불임증을 心身의 문제 즉 五勞七傷으로 인한 虛損百病으로 인식하고 세운 치료 원칙과 처방을 실제 현대 임상에서도 구현하여 활용하길 제안한다.

#### References

1. Chu JYA, Kim SH trnas.. Benjingshuzhengshang. Daejeon, Jumin. 2012.  
 鄒澍潤安 撰, 金善鎬 譯. 本經疏證·上. 대전. 周

어떻게 흘러갔을까?"

- 珉. 2012.
2. Don WM. Bencaogangmujingyao. Guangdong. Guangdongkeji publisher. 1990.  
钱远铭. 本草綱目精要. 广东. 广东科技出版社. 1990.
  3. Jang R. Zhangshiyitong. Seoul. Iljung Publisher. 1992.  
張璐 著. 張氏醫通. 서울. 一中社. 1992.
  4. Jin JM. Furendaquanshengfang. Officer of four storehouse encyclopedia. Zhongguoyixuedaxi 10. Seoul. Yeogang Publisher. 1987.  
陳子明. 婦人大全良方. 四庫全書官. 中國醫學大系 10. 서울. 驪江出版社. 1987.
  5. Jin JM. Seol G annot.. Xiaozhufurendaquanshengfang. Seol G et al.. Xueshiyan. Beijing. China Chinese Medicine Publisher. 1997.  
陳子明 編. 薛己 注. 校注婦人良方. 薛己 等撰. 薛氏醫案.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6. Jusuk. Pujifang. Officer of four storehouse encyclopedia. Zhongguoyixuedaxi 26. Seoul. Yeogang Publisher. 1987.  
朱橚 編著. 普濟方. 四庫全書官. 中國醫學大系 26. 서울. 驪江出版社. 1987.
  7. So WB. Zhubingyuanhoulun. Seoul. Daeseongmunhwa Publisher. 1992.  
巢元方. 諸病源候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2.
  8. Sun SM. Beijiqianjinyao. Seoul. Daeseongmunhwa Publisher. 1992.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
  9. Sun SM original work. Joo BH et al. annot.. Qianjinyifangxiaozhu. Shanghai. Shanghai old book Publisher. 1999.  
孫思邈 著. 朱邦賢 외 5인 校注. 千金翼方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10. Sun SM. Qqianjinyifang. Seoul. Daeseongmunhwa Publisher. 1989.  
孫思邈 著. 千金翼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1.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national Korean Medical school. Galenic pharmacy. Seoul. Yeonglim Publisher. 2016.  
전국한외과대학 공동교재편찬위원회. 본초학 [중판]. 서울. 영림사. 2016.
  12. Gang MJ. Study on clinical Infertility.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1988. 2(1).  
강명자. 불임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988. 2(1).
  13. Gim MG, Lee SW, Wang GG. Study and probe on the therapeutic measures of Infertility in Qianjinyao. Liaon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6. 43(2).  
金珉串, 李成卫, 王庆国. 《千金要方》不孕症治法探析. 辽宁中医杂志. 2016. 43(2).
  14. Guo YY, He YL, Wu F. The Elucidation on the Treatment Theory of Infertility in Beijiqianjinyao. Chinese Medicine Modern Distance Education Of China. 2015. 13(14).  
郭勇义, 贺亚蕾, 吴芳. 《备急千金要方》不孕症治疗理论阐微. 中国中医药现代远程教育. 2015. 13(14).
  15. Jeong AL et al.. A Case Report of Unexplained Secondary Infertility.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07. 20(4).  
정아롱 외 3인. 원인불명으로 진단받은 속발성 불임환자 례의 1임상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 2007. 20(4).
  16. Jo JH et al.. A Case Report of Primary Infertility caused by Uterus Unicornis.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05. 18(3).  
조진형 외 6인. 단각 자궁으로 인한 원발성 불임 환자 1례의 임상 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

- 회. 2005. 18(3).
17. Lee BW et al.. A Study of Gynecology Theory in Qianjinyaofang and Qianjinyifang.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15(4). 2002.  
 이병욱 외 3인. 《千金要方》과 《千金翼方》에 記載된 婦人科 學說에 關한 研究.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5(4). 2002.
18. Lee YH.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Infertility Quality of Life among the Infertility Women. Master's thesis of Kosin graduate school. 2018.  
 이영희. 난임 여성의 난임 관련 삶의 질 영향 요인.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18.
19. Lu H. Study on using medicine rule in Qianjinyifang's gaining child prescribe. Liaoni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6. 43(4).  
 露紅. 《千金翼方》求子方用藥規律和特色探討. 遼寧中醫雜誌. 2016. 43(4).
20. Moon HJ, Jo HJ. A Case Report on Four Pregnancies of Subfertile Patients with Low Anti-Mullerian Hormone (AMH) Level after Korean Medical Treatments.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15. 28(2).  
 문현주, 조현주. 혈중 항물러관호르몬 저하를 진단 받은 난임 환자의 한방치료 후 임신 4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5. 28(2).
21. Park CS. A Study on the Mental Anguish of Subfertility Women. Master's thesis of Korea graduate school. 2013.  
 박춘선. 난임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2. Wee HS. Pregnancy of Infertility with Endometriosis after Oriental Medicine Treatment Diagnosed as a IVF Case. A Case Report.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10. 23(3).  
 위효선.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복강 내 유착으로 체외수정시술 권고 받은 후 한방 치료로 임신된 난임 환자의 증례 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0. 23(3).
23. Yoon Frederiksen et al.. Efficacy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psychological and pregnancy outcomes in infertile women and m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MJ Open. 2015.
24. Shindonga. An one professional man's impressive memoirs of enduring sterility for nine years [Article]. 2008 March [cited on June 5, 2018]; March issue : Available from: <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2/13/107187/1>  
 신동아. 9년 불임 이겨낸 전문직 남성의 감동 수기[기사]. 2008년 03월호. [cited on June 5, 2018]; March issue : Available from: <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2/13/107187/1>